

호우 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'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' 회의 개최

-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호우 피해 지원 및 복구 대책 논의

□ 정부는 7월 24일(목)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'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' 회의를 개최*했다.

* 참석기관 : 중앙(행안·과기정통·국방·농림·산업·복지·환경·국토·중기부, 산림·질병청, 금융위), 지자체(광주, 경기, 충남, 전남, 경남)

○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간당 강수량이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·시설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, 정부는 지난 20일(일)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'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'를 운영하고 있다.

□ 이날 회의에서는 ▲호우 피해 복구 대책 추진 계획 ▲부처별 피해 지원 및 복구 대책 ▲지자체 피해 현황 및 응급복구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.

○ 특히,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구호·심리 지원, 침수 주택·농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,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.

○ 아울러, 수도·전기·통신 복구, 도로 통행 재개, 하천 제방 복구를 비롯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인력·장비 응원체계도 점검했다.

□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재민의 고통을 덜고,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종빈 (044-205-53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영 (044-205-5318)